

기보배 “광주시민들 응원 氣 받아 금메달 땀어요”

- 런던 올림픽 영웅들 광주시청 환영식
양학선 “양2 기술 개발해 올림픽 2연패 하겠다”
기성용 “축구 사상 첫 메달... 열띤 응원에 감사”
최은숙 “펜싱 더 많은 메달 따도록 노력할게요”

땀의 결실을 이루고 돌아온 만큼 런던 영웅들의 표정은 밝았다.
21일 광주시청에서 열린 광주 출신 런던 올림픽 메달리스트 환영식 참여한 기보배(24·광주시청), 양학선(19·한체대), 최은숙(27·광주 서구청), 기성용(23·셀틱)은 환한 표정으로 사람들 앞에 섰다.

“고 애꿎은 응원을 보내준 광주시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국을 대표하는 공사로 등극한 기보배는 오는 9월 일본에서 열리는 월드컵 파이널의 선전도 다짐했다.
2연패라는 뚜렷한 목표가 생겼다 ‘도마의 신’ 양학선은 “늦은 시간이었는데도 많은 분들이 응원을 해주셨다. 주말에도 안 쉬고 열심히 훈련한 결과를 얻어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세계 정상에 섰지만 양학선의 기억에는 런던에서의 아찔한 순간도 남아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을 묻는 질문에 양학선은 “훈련을 하다가 평상시 안 하던 동

작이 나왔었다. 구름관을 밟을 때 한 쪽 발이 빠져서 등으로 떨어진 적이 있다”고 가슴 찡찡했던 경험을 말한 양학선은 “금메달을 땀지만 아직은 더 열심히 해야 할 것 같다. 내년부터는 양2 기술도 쓰겠다”고 언급했다.
한국 축구 사상 첫 올림픽 메달의 주역이 된 기성용은 “한국에서 많은 응원을 보내 주셔서 감사하다. 한국을 대표해 메달을 따서 기쁘다”며 “후배들이 앞으로 더 나아가 은메달과 금메달을 딸 수 있을 것이다.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노력한다면 좋은 선수가 될 것이다”고 얘기했다.
여자 펜싱 에페 단체전 은메달에 함께 한 최은숙도 기보배의 순간을 얘기했다.
최은숙은 “처음 메달을 땀는데 영광스럽고 기분 좋은 자리가 된 것 같다. 펜싱이 많은 메달을 따서 더 좋았다”며 “9월에 시합이 있다. 대표선발전이 있어서 쉬지 못하고 훈련을 시작할 것 같은데 준비를 잘해서 좋은 결과 얻겠다”고 앞으로의 각오를 언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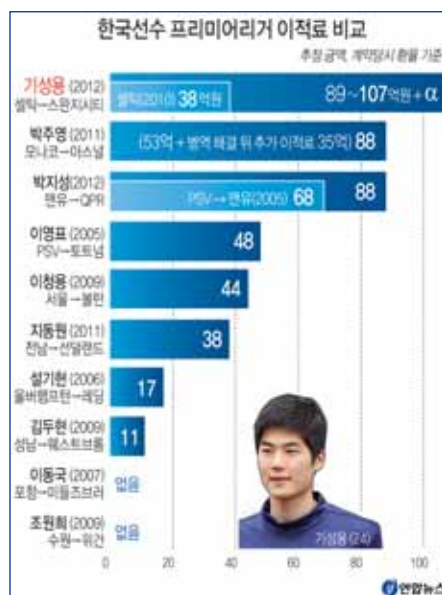
제30회 런던 올림픽에 출전해 선전한 광주출신 선수들 환영행사가 21일 오전 광주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시작에 앞서 기보배(좌로부터), 최은숙, 양학선, 기성용 선수가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기성용 ‘백조의 호수’에 등지

EPL 스완지시티FC 이적료 107억 합의

광주출신 첫 프리미어리그
기성용 “가장 기대 되는 팀”

“이적은 확실하다. 새로운 도전에 기대가 많다.”
스코틀랜드 프리미어리그에 활약하고 있는 기성용(23·셀틱)의 이적이 임박했다.
기성용은 21일 광주시청에서 열린 런던 올림픽출전 광주 선수단 환영행사에서 “언론에 (이적)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확인된 것은 없고,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조금 더 생각하면서 결정할 문제다”고 언론 보도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적은 분명히 한다.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것에 대해 기대도 되고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해 이적을 기정사실화했다.
기성용의 프로 세 번째 팀은 스완지시티가 될 전망이다.
휴 켈킨스 스완지 시티 회장은 21일 스코틀랜드 지역 TV와의 인터뷰에서 기성용의 영입을 놓고 셀틱과 이적료에 합의를 했다고 공식 언급했다.



켈킨스 회장은 인터뷰에서 “세부 계약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기성용은 아주 흥미롭고 장래가 촉망되는 선수다”고 밝혔다.
기성용을 놓고 프리미어 구단들의 러브콜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이적에 대한 구단 관계자의 구체적인 언급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로이터와 AFP 등 주요 통신사들도 켈킨스 회장의 인터뷰를 인용해 스완지시티가 셀틱과 이적료 600만 파운드(107억원)에 기성용을 영입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기성용의 측근 인사도 “거의 합의가 이뤄졌다. 사인만 남겨둔 상황이다”고 밝혀 스완지 시티로의 이적을 재확인했다.
2010년 FC 서울에서 스코틀랜드 프리미어리그 셀틱으로 이적한 기성용은 이에 따라 해의 진출 2년 만에 프리미어리그에 입성하게 됐다.
퀸즈파크 레인저스의 박지성을 시작으로 이영표, 설기현(전 레딩), 이동국(전 미들즈브러), 김두현(웨스트브로미치), 조원희(전 위건), 이정용(볼턴), 지동원(선덜랜드), 박주영(아스널)에 이어 열 번째 한국인 프리미어리그가 된다.
한편 기성용은 새 동지로 유력시 되는 스완지 시티에 대해 “개막전에서도 대승을 거뒀고, 조직적인 팀이고 지난해 처음 EPL로 승격해서 좋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기대가 많이 되는 팀이다”고 언급했다.

스완지시티AFC는?
창단 100년 웨일스 구단
스페인식 패스축구 펼쳐

기성용(23)이 이적을 눈앞에 둔 스완지시티AFC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프로축구 구단 중 유일한 웨일스 구단이다.
스완지시티는 1912년 스완지타운이라는 이름으로 창단돼 올해가 창단 100년째다.
웨일스에 있는 리버티 스타디움을 홈 구장으로 삼고 있다. 서포터들은 ‘잭스’라고 불린다.
역사가 오랜 팀이지만 프리미어리그에 승격된 지는 올해가 2년째다.
2011-2012 시즌에 프리미어리그에 합류했다.
승격 첫해 11위를 기록하면서 2011-2012 시즌에 승격한 팀 중 가장 좋은 성적을 냈다.
처음 프리미어리그에 오른 팀이지만 강팀으로 평가되는 아스널(3-2), 맨체스터 시티(1-0), 리버풀(1-0) 등을 꺾기도 했다.
승격을 이끌었던 브랜던 로저스 감독이 리버풀로 떠나기 지휘에 공백이 예상됐지만 오히려 미카엘 라우드럽 감독이 부임하면서 스페인식 패스 축구를 구사하는 팀으로 재탄생했다.
라우드럽 감독은 부임 후 첫 정규 경기였던 18일(현지시간) 2012-2013 시즌 개막전에서 박지성이 뛰는 퀸즈파크레인저스를 5-0으로 대파하면서 이름값을 했다.
스완지시티에는 미구엘 미추, 앙헬 라벨 등 스페인 선수들이 다수 뛰고 있다.
스완지시티에는 수비형 미드필더가 많지 않아 기성용의 주전 경쟁에도 유리한 편이다.

광주 FC 박기동 3경기 연속골 도전

K리그 29R 포항과 맞대결

광주의 장신 공격수 박기동이 3경기 연속골에 도전한다.
광주 FC가 22일 오후 7시30분 포항 스틸야드에서 K리그 29라운드 포항 스틸러스와의 맞대결을 벌인다.
지난 라운드 대전과의 홈경기에서 창단 첫 3연승에 도전했던 광주는 1-2로 패하면서 기록을 이루지 못했다. 하지만 부상으로 시즌 출발이 늦어졌던 박기동이 매서운 움직임으로 그라운드를 누비며 2경기 연속골에 성공했다.
남은 정규리그 두 경기 결과에 상관없이 스피릿 시스템 하위리그에서 경기를 펼쳐야 하는 광주에게는 박기동의 부활이 천군 만

마다. 박기동의 제공권과 해결사 본능은 치열한 강등 탈출을 위한 주요 전력이다.
제주와의 27라운드 경기에서 뒤늦게 골맛을 봤던 박기동은 “최근 컨디션이 좋다. 중요한 경기들이 남아있다. 팀의 강등권 탈출을 위해서라도 공격에 욕심을 내보겠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대전전에서 한 골에 만족했지만 박기동은 4차례 위협적인 유효슈팅을 날렸다. 자신감까지 더해지면서 3경기 연속 골도 노려볼만하다. 박기동을 전면에 내세운 광주는 포항전을 시작으로 플랜 B를 가동한다. 승점 3점에 욕심내기보다는 난적 포항, 경남과의 남은 정규리그 두 경기에서 지지 않는 경기를 하겠다는 생각이다.
창단 첫 3연승에 대한 욕심이 대전과의 지

난 경기의 패배의 원인이 됐다는 평가에서 나온 작전이다.
광주는 경기 시작과 함께 적극적인 공격으로 대전의 골문을 노렸다. 점유율 59-41, (유요)슈팅 7-3, 코너키 6-2로 압도적인 경기를 펼쳤지만 오히려 역수에 의한 실점을 기록했다.
광주는 그동안 포항과의 맞대결에서 1무2패를 기록했다. 객관적인 전력이나 성적을 보면 광주의 열세다. 하지만 광주는 27라운드 제주와의 경기에서도 역습과 정확한 한 방향으로 극적인 2-0 승을 가져왔다.
최하위 강원과 12위 광주의 승점은 2점 차이에 불과하다. 박기동이 지지 않는 경기를 위한 중심에 서서 연속 골을 노리고 있다.

올림픽 ★들 K리그에 뜬다

지동원·윤석영·정성용

팬들에게 사인볼·선물

사상 첫 올림픽 4강 진출의 쾌거를 이룬 축구 대표팀의 태극전사들이 속속 국내 그라운드로 복귀해 홈 팬들과 만난다.
홍명보호의 수비를 책임진 윤석영(전 남)과 김기희(대구)는 22일, 골키퍼 정성룡(수원)은 23일 K리그 홈경기에 나설 예정이다.
지난 19일 경남 원정 경기부터 풀타임으로 뛰었던 윤석영은 22일 FC서울과

의 경기에 앞서 관중 앞에서 감사 인사를 전한다.
전남 출신인 지동원(선덜랜드)도 함께 나와 팬들에게 사인볼을 선물할 예정이다.
김기희의 소속팀 대구는 22일 오후 5시부터 대구 스타디움 매포소쉬 광장에서 런던올림픽 동메달과 김기희의 국가대표팀 유니폼, 축구화 등을 전시하고, 사인 유니폼 경품 이벤트 등을 진행한다.
수원도 23일 대전과의 경기에서 정성룡의 귀환을 환영하는 행사를 연다.

맨유 개막전 충격패
에버턴에 0-1 탈미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우승후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맨유)가 시즌 첫 경기에서 에버턴에 탈미를 잡혔다.
맨유는 21일(한국시간) 영국 리버풀의 구디슨 파크 경기장에서 열린 2012-2013 프리미어리그 1라운드 에버턴과의 원정 경기에서 후반 12분 마루아네 펠라이니에게 선제 결승골을 내줘 0-1로 졌다. 펠라이니는 오른쪽 코너킥 상황에서 마이클 캐릭을 뿌리치고 헤딩슛으로 맨유 골 그물을 흔들었다.
맨유는 이날 가가와 신지와 로빈 판 페르시 등 새로 영입한 선수를 비롯해 기존 주축인 웨인 루니, 폴 스콜스 등 핵심 선수들을 모두 내보내고도 시즌 개막전부터 패배를 안았다.